

# ● 시나가와 역사관 해설지

## 발굴된 다이묘 저택과 된장 공장

센다이자카 유적이란?

도쿄도 시나가와구 히가시오이에 있는

센다이자카 유적은 1987·88년에 도로정비  
계획에 의한 터널 공사에 따라 발굴조사가  
이뤄졌습니다.

‘센다이자카’라는 이름은 1658년에 이  
부근에 센다이번(지금의 미야기현 센다이시  
주변) 다테 가문의 시모야시킴(저택)가  
꾸려진 것에서 유래합니다. 센다이자카  
유적은 그 저택의 북동쪽 구석에 해당하며,  
에도 시대의 다이묘 저택과 연관된 유물이  
다수 출토되었습니다. 또한 저택 내에서  
이뤄진 된장 제조와 관련된 유물도 다수

출토되었습니다.

출토품으로 본 다이묘 저택에서의 생활

센다이자카 유적 발굴을 통해 저택 부지와  
외부 사이에 조성된 해자가 발견되었습니다.

이 해자는 너비 약 5m, 깊이 약 2m 로,  
안쪽에는 담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. 단,  
이 해자는 완공 후 비교적 이른 시기에  
매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. 또한 다테 가문의  
문장(紋章)이 들어간 기와가 다수  
발견되었습니다.

아울러 주발·접시·돛쿠리(술병)·냄비 등  
일용품에서 고급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



▲센다이자카 유적 출토품

종류의 도기 및 진흙으로 만든 장난감도  
출토되었습니다. 또한 매장된 것으로 보이는  
개의 뼈가 5 마리 분 출토되었습니다.  
애완동물로 키우다가 죽은 후 정성껏 묻어준  
것으로 보입니다. 그중 1 마리는 대형견인데  
외국 개이거나 그 후손으로 추정됩니다. 이들  
출토품은 저택에서의 생활을 알 수 있는  
단서를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.

1660 년에 센다이번의 제 3 대 번주 다테  
쓰나무네는 품행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에도  
막부로부터 은거를 명받았습니다. 그 후  
50 년 이상에 걸쳐 이 시모야시키에서  
생활했습니다. 센다이자카 유적에서는  
고급스러운 도자기 파편 등이 비교적 많이  
발굴되었는데, 쓰나무네의 은거 생활을 엿볼  
수 있습니다.

#### 된장 양조

센다이자카 유적에서는 에도 시대에 된장  
양조에 쓰인 것으로 추측되는 5 곳의  
돌가마터가 발굴되었습니다. 이들 중 가장

오래된 것은 18 세기 중엽의 것입니다.

당초 이곳에서는 에도에 있는 다테 가문의  
가신이 먹을 된장을 소규모로 만들었으나,  
이윽고 상품으로서 대규모 생산을 하게  
됩니다. 1855 년의 평면도를 보면, 이 저택은  
'센다이 된장 저택'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 
센다이번은 히타치쿠니 류가사키(지금의  
이바리키현 류가사키시)에도 영지를 갖고  
있었는데, 여기서 생산되는 양질의 콩이  
된장의 원료가 되었습니다.

메이지 시대(1868~1911)가 되자, 된장  
양조 공장은 벽돌 건물이 됩니다.  
보일러·굴뚝·연도(煙道)·가마 등 벽돌 건물의  
잔존물이 발굴되었는데, 근대적인 공장이  
꾸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. 1902 년에 다테  
가문이 경영한 된장 양조 회사는 야기  
가문에 경영권이 계승되어, 야기 합명회사  
센다이 된장 양조소가 됩니다. 이 잔존물도  
그 전후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.

센다이자카에서 발견된 에도 시대 이전의

유적

센다이자카 유적에서는 고분 주위에 파인 도랑이 두 곳 발견되었습니다. 이 고분은 6세기 전반부터 중엽에 걸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. 현존하지는 않지만 센다이자카 유적 주변에는 몇 기의 고분이 확인되었으며, 당시 이 일대에는 고분군이 조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.

또한 현존하지는 않지만, 센다이자카 유적 인접지에는 기원전 2,000년~기원전

1,000년경의 조몬 시대 후기의 것으로

추정되는 패총이 있습니다. 조몬 시대부터 이 부근에서 사람들이 생활했던 것입니다.



▲근대의 된장 양조 시설